비아그라의

다양한 정규 비아그라 제네릭

다종다양의 제네릭이란 화이자 주식회사의 비아그라 이외에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실데나필'을 유효성분으로 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비아그라의 후발품 또는 후발 의약품이라고도 합니다.20년 정도 전까지 의료업계에서는 제네릭을 '조로' 또는 '조로품'이라고도 불렀으므로 '비아그라의 조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동화약품, 양진도, 아스카제약, 알프레사파마, 혼초제약, 킷세이약품, 마야도제약, 타츠미화학, 후지화학공업, 타케다테바파마의 10사에서 발매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다음으로 제네릭이 출시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일본 국내에서 제네릭 비아그라가 등장하려면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 특허】와 발기부전 치료의 【용도 특허】의 2가지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화이자 주식회사의 비아그라의 물질 특허는 2013년 5월 17일에 만료, 용도 특허는 2014년 5월 13일에 만료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태로서는, 어느 제약회사라도 「생물학적 동등성」과, 장기 보존 시험이나 가속 시험등에서 「약제의 안정성」을 증명해, 적절한 수속을 거쳐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제조 판매 승인을 얻으면 발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종류가 있는가?

2014년 5월 26일에 국내에서는 첫 비아그라 제네릭을 대기업 후발품 메이커인 「동화약품 주식회사」로부터 발매 개시.비아그라정과는 달리 구강붕괴정(OD정이라고 해서 물없이 먹을 수 있도록 타액의 수분만으로 입안에서 녹는 약)이라는 제형으로 가격도 저렴해져 단번에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이를 따르듯이 각 제약 기업으로부터 발매되어 2014년도 말까지 총 10개사에서 비아그라 제네릭이 발매 개시되었습니다.각각의 제네릭의 특징이나 이미지, 발매일등은 이하의 국내 정규 비아그라 제네릭 일람 비교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